다산포럼

적폐 청산은 무엇으로 하는가

김 정 남
언론인

지난 7월 25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 참석한, 문재인 내각의 첫 국무회의가 열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 문재인 내각을 놓고 교수 내각이니 현역 의원이 5명이나 발탁됐다느니, 여성 장관 30%라는 공약이 실현되었다는 등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것은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위반 사례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각 자체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각'이라는 조롱과 수모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었다면서, 공직 배제의 기준으로 이른바 5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22명을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그 가운데 15명(68.2%)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고, 특히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은 5대 원칙 중 4개를 위반했다고 한다. 5대 원칙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세금 탈루로 11건, 부동산 투기 10건, 논문 표절 9건 등이며, 5대 원칙 이외의 의혹까지 확대하면 후보자 1인당 4.59건이었다고 하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노릇이다.

만연한 도덕 불감증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연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삼고초려했는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물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는, 지난날 노무현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하여 배운 학습 효과와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 통합을 향한 탕평인사로 '베스트 코리아' 내각을 구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 또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청문회 대상자들이 5대 원칙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스스로 물러난 후보자가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체통이 이렇게 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5대 원칙 위반 사례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임명을 감행하면서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대통령의 진정성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마지못해 하는 유감 표명이나 어물쩍 호도로 그냥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1990년대에 뒤늦게나마 이 땅에서 평화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산업화를 주도해 온 사람들을 실용주의 세력이라 부르고 민주화 투쟁에 젊음을 바친 사람들을 일컬어 도덕주의 세력이라 불렀던 적이 있었다. 정자정야(政者正也)라, 민주화 세력만은 그래도 부정부패에 쉽게 물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뒤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민주화 세력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부정부패라는 탁류에 빠져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개혁을 말하려거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청문회 과정을 통해 모두 31명이 낙마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부동산 투기가 14명, 위장 전입이 8명, 세금 탈루 등 재산 부정 축재가 8명, 논문 표절이 5명, 병역 회피가 4명, 경력 논란이 3명, 거짓 해명이 3명이었고, 직업별로는 교수 출신이 19명, 법조인 8명, 관료 8명, 언론인 3명 등이었다. 여와 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의 만연과 그것을 당연시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젖어 있다. 나라다운 나라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범국민적인 인문정신 운동이 절실하다.

언젠가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선생이 그 특유의 달필로 쓴 '염생위'(廉生威)라는 휘호의 족자를 본 적이 있다. "목민관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덕목이 청렴"이라고 다산 선생이 말한 것처럼, 해공도 "청렴이 위엄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누가 나더러 "개혁과 적폐 청산은 무엇으로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청렴, 그 높은 도덕성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적폐가 적폐를 개혁할 수 없으며, 적폐로 적폐를 청산할 수는 더욱 없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의 눈에 정의롭게 비쳐야 한다. 개혁을 말하고, 적폐 청산을 말하려거든 먼저 국민의 눈에 깨끗하고 반듯한 인사들로 채워진 도덕적인 정부로 비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 개혁과 적폐 청산은 거짓과 위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사상누각으로 끝날 것이다.

청춘 톡·톡

꿈이란 무엇일까

태 지 운
남부대 IT공학과 3학년

'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청춘이라면 살면서 한번쯤은 꿈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이다. '내 꿈은 무엇인가?' 자문해본다.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다. 하루는 아이들에게 각자 꿈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의외로 자신의 꿈을 선뜻 말하지 못할 뿐더러, 꿈의 의미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의사가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저 막연하게 '무엇이 된다'는 개념으로 꿈의 개념을 한정해 말했다. 아이들의 이런 생각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 날을 계기로 한동안 '내 꿈이 무엇인가?', '꿈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주변에는 자신의 꿈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을 볼 때마다 매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쩌면 이들은 꿈이란 개념을 너무 거창하고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시점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성장해오면서 수없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머릿속에는 '꿈=무엇이 되는 것'이란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꿈이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꿈이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꿈이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등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언젠가 꿈을 정의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꿈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사실은 꿈이라는 게 결국은 'be'나 'have'나 'do' 중 하나이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각각 사람들의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다', '무엇을 가지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이 셋 중의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꿈은 be의 개념으로 '무엇이 되어야만 꿈이다'라고 생각하나, 꿈은 '무엇을 가지는 것(쟁취)', '무엇을 하는 것' 또한 꿈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나의 꿈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볼 때는 be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have나 do의 방식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be 이거나 have 또는 do 라면 모든 것이 꿈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꿈이라 할 수 있는가? 무엇이 꿈이 될 수 있는가를 알기 전에 나의 학창시절과 비교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예전의 나를 되돌아보면 고등학교 시절은 죽어 있었다. 병에 걸려 죽은 사람마냥 시달렸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시절의 나는 어떠한 목표도 어떠한 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검에 불과했기에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열정도 애정도 가지지 않았고 그저 하루가 주어진 대로 살아갈 뿐이었다. 이렇게 생활하던 내가 전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나의 꿈을 가지게 된 이후였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고민하던 중에 지금 현재 꿈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꿈은 대학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줄 뿐만 아니라 꿈을 가지게 된 시점에서 지금 이순 간까지도 매순간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것이 나의 꿈인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 꿈이 지금의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가슴을 울린다면 그건 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꿈이 현재의 나를 성장시켜 나를 이끌어 줄 것이고, 또 다른 꿈들을 꾸게 할 것이다.

결국 꿈은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되고, 살아가는 데 대한 큰 힘이 되어 준다.

바로 지금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한다. 그 꿈이 현재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기 고

갈수록 품격 더해 가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김 창 석
수필가

우리에게는 그나마 하계 휴가라는 반짝 그늘이 있기에 폭염에도 위안이 된다. 쫓고 쫓기는 일상의 긴장을 털어내고 자연 속에서 물가에 발을 담그고 산들바람을 베개 삼아 사색하며 모처럼 삶의 여적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생활인의 지혜다. 그 절정이 바로 오는 3일까지 장흥댐 수변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아닌가 싶다.

별빛 쏟아지는 여름밤 강변에서 가족 친지 이웃들과 수박을 쪼개며 반딧불이 술래잡기, 물놀이, 어렸을 적 동요를 춤사위하며 읊어보는 낭만, 남녀노소 다문화가족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과 먹을거리, 볼거리, 문화공연으로 기획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맛깔 나는 물축제의 메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필요하다. 선조의 삶이 깃든 민속에서 그 궁리를 찾을 수 있다. 제주도에 물 허벅문화가 있고 우리나라 마을마다 우물문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야 말로 이러한 것들을 재현하여 물에 대한 공동체 정신을 발현함과 동시에 신세대들에게도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물축제의 정신이 물을 단순히 레저용 관광상품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도 안된다. 지역 공약사업의 명분 세우기식 날림공사가 되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다. 바라건대 물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공유하며 물의 오염과 낭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성공한 축제의 모델로 평가받고 기록될 것이다.

어떻든 국내 지자체 가운데 물축제를 처음 착안하여 벌써 10년째 성년을 맞이한 장흥군의 혜안이 돋보인다. 이에 걸맞게 장흥은 산자수명한 자연생태계로 호평 받는 축복 받은 고장이다.

그 내면에는 남해바다의 사립문에다 수려한 호수와 계곡, 정자로 통하는 골목마다 흐르는 맛과 멋, 시와 풍류가 있다. 방랑객들이 호감을 갖고 짐을 풀었던 배경이다. 한마디로 시와 벗과 술이 농을 걸어오는 셀프관광의 명소다.

장흥에는 또한 보림사와 도립공원, 천관산 문학공원, 우드랜드, 편백숲, 전통토요시장, 심천 물 문화관, 동학기념관, 회진성 등 역사성 있는 소재들이 즐비하며 국내 생산량의 최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한우, 키조개, 낙지, 갯장어, 표고버섯 등 건강 먹을거리 명산지로서 자존심도 대단하다.

한국 전통차의 지존인 청태전 찻잔의 매력과 밸리댄스의 당돌한 볼륨도 고급스럽다. 그뿐인가. 축제의 흥은 어른들의 귓전에 익숙한 두만강 푸른물 뱃사공과 지척을 알 수 없는 황포돛대의 구슬픈 가락도 담아낸다.

물축제 부대행사로 장흥문화원이 주관하는 제18회 장흥문화예술인 대회도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다채롭게 펼쳐졌다. 문림의향의 향맥은 전국 최초로 장흥이 문학관광기행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올렸으며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만 해도 100여명을 훌쩍 넘는다.

장흥 문학의 뿌리는 조선시대 지리학자 요 정현신보를 저술한 존재 위백규 선생과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시기적으로 송강 정철 보다 앞서 발표한 관서별곡의 저자 기봉 백광홍 선생이 우뚝 선다. 이들의 학문을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함으로써 한국문학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줄기는 현대에 와서 송기숙, 이청준, 한승원 등 국내의 걸출한 중견작가를 태동하더니 최근에는 마침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고 있는 맨부커상에 한승원 작가의 딸인 한강이 소설 '채식주의자'로 수상의 영예를 안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는 동인문학상 수상자인 이승우 조선대 교수를 황석영 작가와 한국에서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꼽기도 했다.

이는 문림의향의 역사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풍성한 문화의 현장에서 함께 하는 시간은 멋스런 사진첩이 될 것이다. 올 여름 휴가만큼은 신비스런 장흥물축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은 어떨까. 친절과 청정의 장흥인이 모두 하나되어 손님맞이 준비에 밤을 새 가며 정성을 쏟고 있다.

社 說

실적 위주 단속보다 주차장 확충이 먼저다

광주 지역 일선 구청들이 공영 주차장 확충은 뒷전인 채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열을 올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개 자치구가 부과한 과태료는 매년 급증해 지난 9년간 12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공영 주차 면수는 되레 뒷걸음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08만5000여 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모두 1181억700만 원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01만여 건(3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73만여 건(296억 원), 북구 69만여 건(278억 원), 남구 32만4000여 건(129억 원), 동구 32만여 건(125억 원) 순이었다. 단속 건수는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폭증했다. 서구의 경우 2014년 10만4000건에서 이듬해 21만1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일부 자치구의 공영 주차 면수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 서구의 공영 주차 면수는 지난해 1263면에서 올해 1088면으로 줄었다. 지난해 1241면이었던 광산구도 올해는 990면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서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공영 주차 면수는 줄인 반면 주정차 단속용 CCTV와 단속 인력은 크게 늘려 원성을 사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입은 통상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주차장 관련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무엇보다 주차장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특히 차량 흐름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력히 단속해야 하겠지만 공영 주차장 확충이나 사전 계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실적 위주의 단속을 일삼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 사과는 했지만

검찰이 어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제보 조작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지목,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뿐만 아니라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은 제보 조작 자료를 만든 이유미 씨와 이 씨 남동생 및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등 총 5명을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씨와 그의 남동생이 녹취파일을 조작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준서·김성호·김인원 등 당 관계자들이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발표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1차 기자회견 이후 제보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추진단이 이틀 후 2차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이 이른바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하자 안 전 대표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의원들은 어제 오후 늦게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을 낭독한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 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당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앞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환골탈태의 각오를 다져야만 한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의 자세가 아닌, 국민 앞에 한없이 낮은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無 等 鼓

부채 바람전

바람은 기압 차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이다. 농경사회에서 바람은 절대적이어서 부는 계절이나 방향 혹은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한글학자인 박용수 선생이 엮은 '우리말 갈래 사전'을 들춰 보면 여러 가지 생소한 바람을 접할 수 있다.

우선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샛바람·동부새(동풍), 하늬바람·가수알바람(서풍), 마파람(남풍), 된바람(북풍)이라 했다. 활을 쏘는 궁사들은 과녁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촉바람', 등 뒤에서 부는 바람을 '오늬바람'이라고 한다.

계절마다 바람 이름도 달랐다. '소소리바람'은 이른 봄에 살 속으로 기어드는 차고 음산한 바람을, '색바람'은 이른 가을에 부는 선선한 바람을 뜻한다. 또 '건들바람'은 첫 가을 상량 머리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은 음력 10월 스무날께 부는 몹시 추운 바람을 의미한다.

'피죽바람'은 모낼 무렵 오랫동안 부는 아침 동풍과 저녁 북서풍을 일컫는 말이다. 이때 바람이 계속 불면 큰 흉년이 들어 피죽도 먹기 어렵다 해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산들바람'은 산들산들 부는 바람을, '명지바람'은 보드랍고 화창한 바람을, '왜바람'은 이리저리 방향 없이 막 부는 바람을 지칭한다. 이처럼 예로부터 바람을 일컫는 말은 많았지만 지금은 현재 생활 속에서 잘 쓰이지 않아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다.

부채 역시 지금은 바람 이름만큼이나 생활 속에서 쓰임새가 적어졌다. 만약 폭염 속에서 바람 한 점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허겁지겁 '손풍기'(휴대용 선풍기)나 선풍기, 에어컨을 찾아 틀 것이다. 그렇지만 부채는 수천 년을 이어 온 '한여름의 의무'를 이런 기계적 장치에 넘겨주었어도, 여전히 땡볕을 가리고 구슬땀을 식히기에 요긴한 생활용품이다.

마침 광주 시립박물관 1층 아트 라운지에서 '부채 바람전'이 열리고 있다. 서예가와 화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킨 다양한 '둥근 부채'(방구 부채)와 '접는 부채'(접부채)를 만날 수 있다. 어느 쥘부채에 쓰인 짧은 문구가 청량감을 안겨준다. "바람 이는 소리 물결 이는 소리 아 시원하구나." 전시는 8월 20일까지이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